

日本홀스타인 共進會와 소의 改良

宋 燦 源

協會 會長

<日本홀스타인 共進會와 소 改良>

지난 10월초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장 초청으로 제8회 홀스타인 공진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져 2주동안의 일본축산을 보게된 것은 나에게는 감회 깊은 일이었다.

그 이유는 1976년 일본의 축산현황을 조사하여 귀국한 후 축산진흥회와 축산진흥 기금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고 일본 젖소 개량에 크게 기여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5개 낙농지역을 중심으로 79년부터 검정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일본 화우개량조합육성방법을 도입하여 한우순수계통번식단지를 전국각도에 1개소씩 8개단지를 조성한 계기를 만든 배경이 된 그 과정을 이번 일본방문을 계기로 다시한번 순회하면서 10년전의 상황과 현재의 발전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の 홀스타인 공진회는 5년간격으로 개최하고 있어 올해로서 제8회를 맞이하였으며 과거와 다른 점은 참가의 기준을 능력면에서 크게 높였다는 점과 새로 다회검정(多回檢定)우 출품을 신설했던 것과 4歲未滿의 소는 자현내(自縣內=自道內) 생산축으로 한정했다는데서 일본낙농이 부업적 수전낙농에서 전업낙농으로 변천한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일본의 낙농은 역사적으로 2백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15년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낙농이 그당시 호당 사육두수가 9두일 때 일본의 낙농은 호당 5~6두에 지나지 않았고 총 사육두수가 백만두, 그리고 사육호수가 42만호였던 것이 금년에 와서는 211만두의 젖소를 8만2천호가 사육하여 호당 25두의 사육규모로 15년만에 끌어 올렸다는 사실은 그대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5년전 일본경제가 한창 번창해 오를 때 농가부업적인 수전낙농(水田酪農) 5~6두규

모르는 일본국민의 경제성장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규모일뿐 아니라 낙농의 근대화를 위해서도 경영규모의 확대와 전업적인 낙농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책적 고민거리의 하나였던 것을 불과 15년만에 경영규모를 전업화의 규모로 끌어 올렸을뿐 아니라 낙농의 선진화를 위한 젖소의 개량을 급속도로 추진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제8회 일본 홀스타인 공진회의 특색이라고 하면 첫째, 비유능력을 중시한 공진회로서 출품자격을 전회보다 30% 이상이나 높여 유지율 3.4%로 환산하여 유량 7,670kg 이상 소만을 경산우에서 출품시킨 점.

둘째, 가축은 풍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세미만은 자현산으로 하고 4세이상도 국내산으로 하되 자현내에서 1년이상 사육한 소로 제한한 점.

셋째는 공진회의 성격을 우량우의 선발과 함께 낙농기술, 낙농경영개선, 그리고 낙농산물의 소비 확대사업을 겸한 점.

넷째는 출품우가 거의 평준화 되었고, 특히 체고의 개량은 목표에 달했으며 유기의 개량도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진회 장소로서는 개최현인 이와데현(岩手縣) 지사가 공진회개최준비 위원장으로서 5년동안 준비를 한 것이 현축산시험장 부지내에 완전 옥내(체육관 같은 영구건물) 시설을 새로 만들어 개최한 점으로 보아 지역별 공진회 순회개최가 그 지역 축산발전에 자극은 물론 양축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일본젖소의 개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거의 대부분의 낙농목장을 가족노동에 의한 자가경영이라는 점과 둘째, 모든 농가가 혈통등록은 상식화된 수준이며 철저한 계획교배에 의해 혈통을 착실히 관리 유지하면서 산유능력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점, 셋째는 젖소의 개량

을 위해 고능력 우수종모우의 확보와 보급, 그리고 넷째는 낙농가의 끊임없는 교육, 다섯째는 혈통의 등록과 점정을 위해 국가, 지방, 그리고 낙협, 축산단체 등이 협조기관으로서 지도사업으로 자기관이 분담 추진한다는 점이 개량의 원동력이 되었고 개량의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는 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국민의 우수소비신장의 둔화에 따른 생산조절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젓소 2百萬두선을 5~6년간 유지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점과 경영개선을 위한 두당 생산성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라 하겠다.

<화우의 개량>

일본 고유의 화우는 농기계의 보급확대로 역용의 가치를 우리보다 먼저 상실하면서 육생산을 위한 육용으로 개량의 방향을 잡은지 오래되었다.

15년전인 1970년에 902천호가 1,789천두를 사육하여 호당 2두씩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1985년에는 298천호가 2,287천두를 사육하여 戶當 규모가 8.7두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일본국민의 축산물 소비는 급속도로 향상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실질 소득의 둔화와 국민 영양수준의 한계등으로 소비신장이 둔화되어 모든 분야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조절에 나섰다. 화우분야는 아직도 쇠고기의 자급이 안되어 증산시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일본의 쇠고기산업은 수입육과 품질이 같은 쇠고기를 생산할 때 수입육과의 가격경쟁상 도저히 화우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과 일본국민의 독특한 식성 때문에 수입육보다 높은 품질의 쇠고기 생산정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쇠고기 등급제가 있었기에 일본 화우산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화우개량의 역사는 80년이나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용(役用)에서 육용(肉用)으로 개량의 방향을 정하고 오늘날의 개량된 육우로 성장한 기본은 첫째, 혈통등록에 의한 화우의 혈통을 확립한 것과, 둘째, 화우의 개체심사에 의한 단점을 찾아내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소(정액)를 선택하여 계획적인 교배를 계속 추진시켜온 점과

셋째는 비육 및 산육능력(産肉能力) 점정에 의한 능력의 개량도 측정이 크게 개량에 기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화우의 개량은 화우개량조합 578개소를 육성하여 개량조합으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관계 조합 및 축산관계단체의 지도사업(指導事業)으로 등록과 심사, 그리고 계획교배 종모우의 선정등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특유의 개량사업추진체제였으며, 그러한 지역 축산관계 조합·단체들이 개량사업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지방자치체의 행정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지역 축산발전 즉 지역지방자치단체 관할문제는 현지사 책임아래 추진되고 있다는데서 개량사업이 활발해졌으며, 전국적인 개량사업이 조기에 정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협회에서는 지역 개량조합을 지도하는 축협·단체들의 지도요원을 혈통의 등록요령과 소의 심사방법등의 교육을 시켜주고 그 요원들에 의하여 지역별 조합별 화우개량에 대한 교육과 심사등을 분담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한편 소의 개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모우의 능력 및 후대점정은 국공립종축장에서 분담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화우의 후보종모우 생산은 “돗토리” “가고시마” 종축목장에서 생산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후보종모우는 “쥬고구(中國) 종축목장”에서 당대의 직접점정을 맡아서 하며, 여기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후보종모우를 1/4~1/8을 선발하여 오후(興羽)종축목장 암소에 후보종모우 1두당 55두씩을 교배하여 간접점정(후대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구시마(福島)종축목장에서는 오후종축목장에서 활용할 증빈우경 신용 소를 생산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 축산단체나 정부종축목장이나 소의 개량목표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화우의 개량사업추진을 보면 1968년부터 산육능력검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975년에 와서는 일본화우가 육용으로의 체형은 갖추어졌으나

육질(肉質)면에서의 결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쇠고기 등급표준에 따른 육질개선목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1983년 제4회 일본화우 공진회 결과 육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다.

○ 일본화우 개량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암소(30개월) : 체고(體高) 128 cm
(125~130 cm)
체중(體重) 560 kg
- 수소(40개월) : 체고(體高) 145 cm
(142~148 cm)
체중(體重) 960 kg
(920~1,000 kg)

○ 일본화우의 현재의 개량도는 다음과 같다.

1955年 현재
 암소 : 체고 125 60個月 128 cm 36個月
 체중 420kg 560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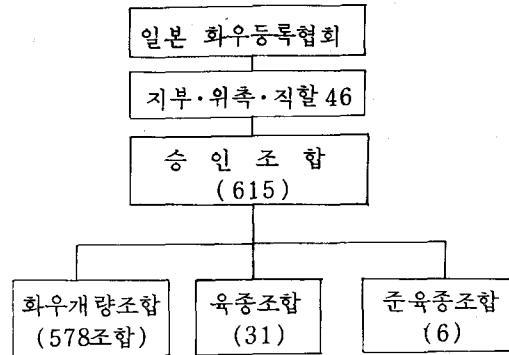
※ 體長은 길게, 體幅과 體深은 높여나가는 目標로 개량사업 추진.

다음은 일본의 젖소와 화우의 개량사업 담당 단체의 기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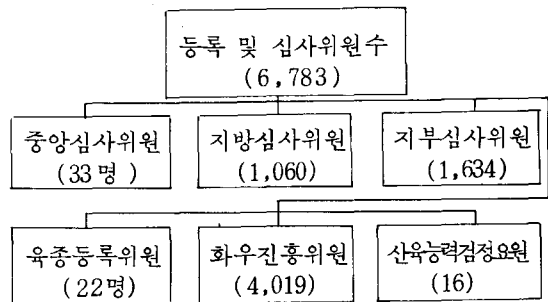
종축개량단체의 조직

1) 일본 화우등록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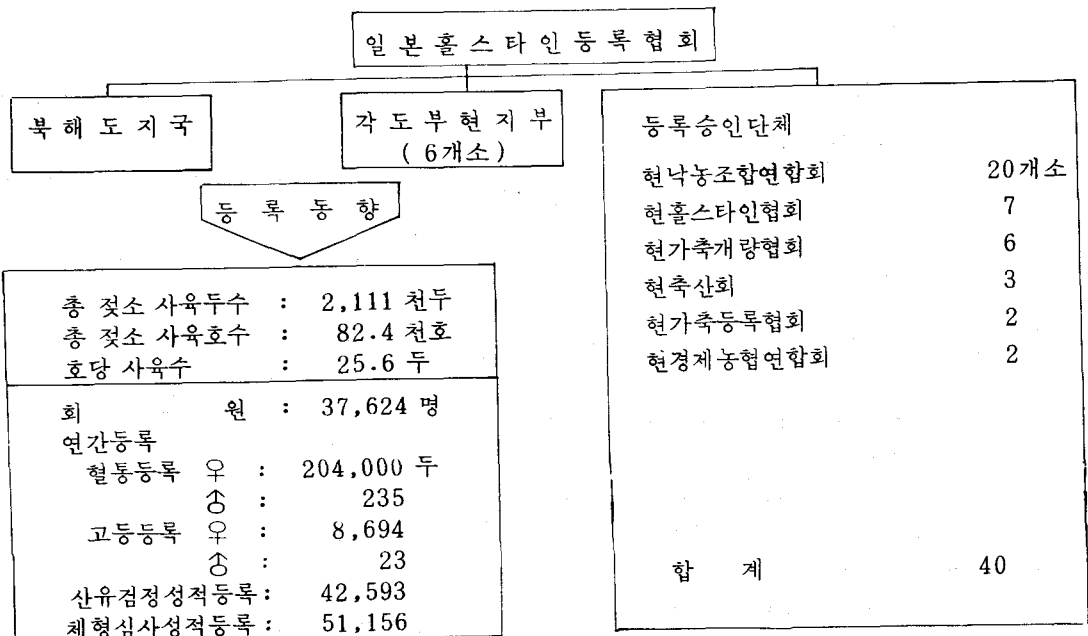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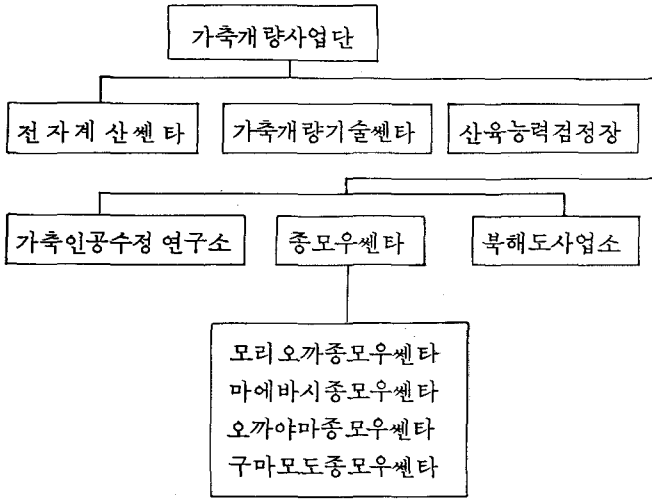
(요원확보)



2)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



3) 가축개량사업단
(사업조직)



(역원 · 고문구성)

- 이 사 장 - 학식경험자
- 부이사장 - 중앙축산회 부회장
- 이 사 - 학식경험자,
축산진흥사업단 부이사장
홀스타인협회 부회장
도. 현 축산과장
- 고 문 - 학식경험자, 대학 명예교수

(재원출자)

- 47도부현 출자
 - 축산진흥사업단
 - 홀스타인협회의 5개단체
- } 4,077,400 천원

한우 순수계통 번식단지 관리운영과 한우개량

金 東 燮
協會 次長

1. 단지조성 연혁

순수한우의 혈통보전 및 우량형질 선발로 한우의 육용형 개량의 기지화와 개량농가 정착화를 위하여 1979.2.2 농수산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년 4.17 유관기관 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도별로 1개지구씩 8개지구를 선정하였고 5.22 ~ 7.18 간에 걸쳐 1차로 기초등록 3,702두를 실시하였으며, 2차로 80.7.21 ~ 8.9 간에 걸쳐 1,529두를 추가실시하여 총 5,231두를 확보함과 동시에 8.1자로 지도원 8명을 채용하였고, 1980년부터 농가 용가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982년부터 농가지원을 사료보조제로 변경하였다. 1982년에 본 사업지구를 해당지역 축협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83.3.30자로 사업지역에 지도원(보조원) 8명을 증원하였다.

2. 사업추진방법

사업참여농가, 사업지구축협(지도원) 및 본

협회의와의 협조로서 기초등록우(5,231두)를 기본축으로 하여 엄격한 선발·도태를 실시하여 세대등록을 추진하여 생산자우에 대하여는 지정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를 실시하여 우량우의 생산확보와 공用に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방법과 지정종모우 현황을 보면 표1,2와 같다.

<表 1> 추진방법

